

[칼럼]

데스크 칼럼) 되풀이되는 지역문화계의 추문

2008-07-03 오후 2:24:34 [광양민신문]

지역 문화계가 특정 단체장의 전횡 및 독단적인 재정운영 문제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른바 ‘광양예술발전시민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예총 광양지부 산하 미술협회 지부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불투명한 재정집행 실태를 폭로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추문은 비단 미술협회만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 국악협회가 지부장의 각종 보조금 횡령혐의로 홍역을 치른 바 있으며, 또 다른 단체도 비슷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단체를 특정인사가 10년 넘게 단체장을 맡아오면서 나타나는 폐해들을 광양미술협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술협회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예술의 활성화의 최일선에 서야 할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체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는 누가 되는 일이다.

문화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권력’은 어떤 의미에서 특정 작가나 기획자가 출중한 능력으로 문화판의 흐름을 좌우할 때도 사용되지만, 지역에서는 작가의 능력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단체장이나 임원 등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횡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단체의 진입제한이다.

2일 기자회견을 한 광양예술발전시민연대는 미술협회 김모 지부장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회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탈퇴시키고, 광양에서 활동하는 능력을 갖춘 예술인을 배격해 순천미협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문화권력의 행사이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회나 행사에 참여를 제한받게 되고, 이는 활동공간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체라면 이미 사유화된 조직이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고양하기 위한 단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광양미협은 회원의 절반 정도를 외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채웠다고 한다.

단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이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광양시민들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각종 전시회 비용까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태준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인의 활동무대인 단체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미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내 다른 문화예술단체들도 출중한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행태를 보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같은 전시회에 전남도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했는데, 공개된 정산서가 가관이다.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처럼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는가?

보조금의 문제는 문화예술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이다.

광양시는 보조금 전용 카드제도까지 도입하면서 투명한 집행을 유도해 나가고 있지만, 집행이 카드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해묵은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그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정산서에는 전시회의 경우 관람인원이 1만명이라고 했다.

일주일에서 10일간의 전시회에 1만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했다면 전시장을 찾는 시민이 하루 평균 1천명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취재활동을 위해 각종 전시장을 찾아 본 기자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황당한 부풀리기이다.

사업의 효과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단체의 추문은 지역이미지의 심각한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광양미협이 사태가 하루 빨리 봉합되어 광양의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광양만신문마스터 ▶ [광양만신문마스터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등록 : 2008-07-03 오후 2:24:34 기사수정 : 2008-07-04 오전 9:30:19

[광양만신문] [예스TV]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

▶창닫기



Copyright © YESTV Corp. All Rights Reserved